

# 베트남 한국 섬유공장 '오더 폭탄'

국제섬유신문 뉴스(2024. 4. 12.)



미국 월마트, 타겟, 에버크롬비 등에서 대규모 오더를 수주한 가운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섬유 봉제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오더 폭탄을 맞아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

- 벤더들이 월마트를 비롯한 타겟, 에버크롬비 등 미국의 초대형 유통 바이어와 브랜드로부터 대량 오더를 수주한 가운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면방, 편직, 염색, 가공, 봉제 공장들이 지난 춘절 이후 오더가 몰려 전 시설을 풀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대형 벤더인 한솔이 월마트에서 오더 폭탄을 맞아 대규모 오더를 처리하느라 자체 공장은 물론 외주 공장까지 총동원하고 있으며, 관련 협력 거래선들 모두 작업 물량이 넘쳐 6월 또는 8월 말까지 풀가동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편직과 염색 등 대형 원단 밀들 역시 벤더들의 미국 오더가 풀리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 춘절 이후부터 베트남내 자체 생산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으며, 대다수 편직·염색 공장 등은 6월 말까지 작업물량이 차 있어 설비를 풀가동하고 있다.
- 베트남 내 봉제공장 등은 벤더들의 하청 공장 확보전이 과열되면서 몸값이 오르고 하청공임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현상은 그동안 크게 매달렸던 미국 내 대형 유통 바이어와 패션 브랜드들의 오더가 본격 풀린 데다 바이어들의 중국 생산기피로 베트남에 오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다.
-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섬유·봉제 공장들이 2월 하순부터 6월 말 혹은 8월 말까지 오더량을 폭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출단가가 기대만큼 따르지 못해 "실속은 별로"라고 푸념하고 있지만, 높은 환율 덕에 채산성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